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

민수기 14:11~19

2009. 1. 28(수), 31(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1.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의미:

바벨탑, 노아 홍수,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1)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바벨탑: 악의 극단, 인간의 주도권,
인간적인 안전 추구, 인간의 이름 내기,
인간의 주인 됨을 주장.

2) 새로운 창조 역사의 참여와 악에 대한 거부

아브라함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의(악이 존재하는) 사명
악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

2. 악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어떻게 악의 문제를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새 창조에는 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911 이후 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
악의 축(G. Bush), “정치가의 사명은 이 땅의 악을 없애는 것”(Tony Blair)

3. 악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들

1) 무시함(정치인들이나 미디어): 악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무시할 것

악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 특히 선과 악을 양분화하는 것은 위험함.

-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과거의 삶의 자세를 전적으로 떠
날 것.
전적인 순종으로 저주의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바꿀 것



“십자가는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Tony Blair
〈토니블레어〉
영국 前총리
1953년생

●진보의 교리

모든 것은 더 낮고 더 충만하고 더
완벽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
ex)다윈, 헤겔, 맬더스...

2) 악을 보고 놀람: 악에 대해 전혀 대비할 자세가 없음.

3) 악에 대해 미숙하고 위험하게 대처하는 것.

반사적인 반응으로 아무 유익도 없으며 도리어 악의 저항만 키움

→미국의 이라크 전쟁?

4) 불교: 현 세계가 환상이고 생의 목표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5) 마르크스: 세상이 프로레타리아의 독재를 향하여 결정적으로 진행함

폭력 혁명이 필요. 이는 성장통일 뿐. 폭력은 최종 결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6) 이슬람: 아직 알라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 성전(聖戰)
도 불사함.

4. 악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 악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방법.

5. 구약의 방법들

1)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직면하시고 심판하시며 계획을 멈추게 하시
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하심. 즉, 아브라함을 부르심.

2) 홍수 이야기

- 물로 쓸어버리시고
- 은혜로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마음에 슬픔과 후회를 안
고서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키 위해 힘쓰심.

3) 선악과 이야기:

인간의 추방 저주를 부과하심.(생명 나무를 먹을 수 없음)

하나님의 새 창조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과해야만 함.

6. 아브라함 자손들의 문제

- 부름 받은 사명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문제
- 아브라함의 잘못된들, 야곱의 속임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김...
- 광야의 40년 동안의 반항(절정: 금송아지 사건)
- 가나안 정복과 바알 숭배
- 왕국 시대도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시작됨(다른 나라처럼 왕을 가지려 함)
- 다윗 왕조의 이야기도 결국 실패함.

왜 이들을(인간) 사용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 겪어야 할 큰 댓가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외로움, 홍수 때 느끼셨던 슬픔, 바벨을 보시면서 느꼈던 좌절...

●아브라함 가족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음. 오히려 정착한 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바벨을 쌓음.

7.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1) 수난 받는 종 이사야 40-55장

- 이사야는 불의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기 원한다면,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고 말함.
- 하나님의 정의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님.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할 것
- “어떻게” 악을 이기느냐?
이스라엘의 소명을 잃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운명에 동참하며,
추방되고 깨어지고 죽음을 당함.
- 구약에선 이 종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음

다니엘 11장과 12장에서...

- 종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 이스라엘 내의 의인들과 동일시됨.
- 인자 같은 이가 등장.
-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하고 같은 일을 함.
- 이는 누구인가?

2)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어떻게 이방 나라가 세상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3) 욥기

욥기도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를 다룸.
욥은 무죄함. 이스라엘은 죄를 범함.
욥기는 친구들의 악에 대한 답을 완강하게 거부함.

〈결론〉 여호와와의 종은 아주 비슷함.
무죄하면서, 불평도 않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모욕을 경험함

1.악의 정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1) 롬 7:1-8:11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죄에 대한 유죄를 선언
하셨고 형벌을 선고하시고 집행함을 선언함.(롬8:3)

2) 성경은 악이 최악을 일을 저지른 후, 주님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고함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고, 욕설을 들어도 되
값지 않으심.(벧전 2:3)

2.복음서는 악과 악의 무서운 권세가 철저히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어짐 (이 모든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세 가지 사건에서 담고 있음)

1) 성전을 심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2) 만찬: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법. 왕은 자신의 생명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줌.

3) 십자가형 자체